

현대미술계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를 만나다

요즘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영국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전과 분단과 평화, 통일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전시 '디엠지(DMZ)'에 다녀왔다. 성격이 확연히 다른 두 전시라 오히려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는 재미가 있다.

DAVID HOCKNEY

DMZ

예술로 조명한 비무장지대



베니스비엔날레 초청작도 전시
'문화역서울284' 5월 6일까지

KTX가 출발하는 서울역 바로 옆에 자리한 옛 서울역사는 남과 북을 연결했던 경의선 열차의 '출발점'이라는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옛 서울역사를 리모델링한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는 '디엠지(DMZ)' (5월 6일까지)전은 비무장지대의 변화와 평화 과정을 조명하는 기획이다. 매표소, 대합실, 역장실, 그릴 등 옛 공간을 그대로 활용한 전시는 공간이 주는 매력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어 흥미롭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도 총괄기획한 전시는 비무장지대의 변화를 상상해보는 '비무장지대(DMZ), 미래에 대한 제안들'로 시작해 평화를 위해 애쓰는 남북한의 현재 모습을 반영한 '전환 속의 DMZ', 군인·민간인·작가들의 서로 다른 시선이 교차하는 DMZ 등을 보여준다.

옛 중앙홀에 들어서면 DMZ에서 가져온 철조망이 보이고 천장까지 닿을 듯한, 나무로 만든 종탑이 서 있다. 안규철 작가의 'DMZ 평화의 종'이다. 작가는 DMZ에서 철거된 철조망의 잔해를 녹여 종을 만들고 그곳에서 가져온 나무로 종탑을 만들었다. 종은 실제로도 울린다. 정연두 작가의 작품 '을지극장'은 '안보관광' 장소로 활용되는, DMZ가 내려다보이는 전망대를 극장으로 상징하고, DMZ에 얽힌 이야기를 실제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모습을 포착해 유쾌한 느낌을 준다.

3등 대합실에 위치한 승호상의 '새들의 수도원'도 인상적이다. 대나무를 활용해 비무장지대의 조류생태를 살펴 새들의 서식지를 만든 설치작품이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에 20년만에 다시 초청된 한국의 이불 작가가 현지에서 선보일 작품의 축소판도 만날 수 있다. 이불 작가는 DMZ 감시 초소(GP) 철수 과정에서 나온 해체 잔해물로 제작된 높이 4m의 대형 모뉴먼트를 베니스 현지에서 전시할 예정이며 이번 서울역사 전시에서는 그 축소판과 스케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1·2 등 대합실과 부인대합실은 DMZ의 가장 상징적인 표상인 군인, 감시초소의 사진, 영상, 아카이브 등을 만날 수 있다. 노순택의 '군인사진 아카이브'가 인상적이며 전준호·문경원 작가의 '프리덤 빌리지'는 DMZ 안에 있는 '자유의 마을'에 관한 프로젝트로 현장에서 가져온 철자재를 활용한 설치와 비디오 작업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2층 전시실에서는 송창, 손봉태, 강운 등 지역 출신 작가들과 손장섭, 김정현, 이세현, 최진욱 등의 회화 작품을 집중 감상할 수 있다. 무료 관람.

/서울=글·사진 김미은 기자 mekim@

서울시립미술관 8월4일까지 호크니전

20만명을 동원하며 막을 내린 마르셀 뒤샹전에 이어 이번에는 데이비드 호크니(82)다. 지난해 11월 그는 제프 쿤스를 물리치고 '생존작가 중 최고'가 작품을 기록했다. 1972년작 '예술가의 초상'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9030만달러(약 1019억 6000만원)에 팔려서다.

지난 12일 오후 2시, '데이비드 호크니'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은 인산인해였다. 평일 낮임에도 갤러리 입장을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이 보였다. 지난달 29일 개막 후 2주만에 2만 4000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번 전시의 주말 관람을 생각한다면 시간을 넉넉히 잡는 게 필요하다.

호크니는 1937년 영국 브래드퍼드 출신으로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면서 수영장, 정물 등을 비롯해 인물 초상화를 다수 제작하며 대중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호크니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영국 테이트 미술관과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호크니의 전 생애에 걸친 주요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로 대표작인 '더 큰 침방'을 비롯해 '아카틀란 호텔' 시리즈, '나의 부모님' '클라크 부부와 퍼시' 등 1950년대 초부터 2017년까지의 회화, 드로잉, 판화 133점을 선보이고 있다.

3개 전시실 7개 섹션으로 구성된 전시는 회화, 판화, 드로잉, 사진을 비롯해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까지 사용하는 그의 변화무쌍한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보여주며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곳은 전시회 포스터로 사

호크니 생애 주요 작품들 한눈에

회화·판화·사진 등 133점 전시

생존 작가 중 최고가 작품 기록

용된 대표작 '더 큰 침방'(1967) 앞이다. 로스앤젤레스 한 저택의 수영장의 모습을 담은 작품은 파스텔톤 아크릴 물감이 주는 온화한 색상과 함께 누군가 물에 뛰어든 후의 순간을 포착해 눈길을 모은다. 독특한 판화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푸른 기타' 시리즈도 인상적이며 차가 고장 나 우연히 머물게 된 멕시코 아카틀란 호텔의 모습을 담은 석판화 연작은 원시적 느낌을 표출하는 화려한 색상과 미묘

한 느낌을 주는 역원근법으로 관객의 시선을 붙잡는다.

마지막 섹션 '호크니가 만난 세상'은 압도하는 대작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50개의 캔버스를 이어붙인 가로 12m의 대작 '와터 근처의 더 큰 나무들'(2007) 앞에 서면 온갖 새와 나무가 가득한 숲속에 들어온 작각이 들려 야생적인 원색의 강렬한 색감으로 광활한 그랜드 캐니언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더 큰 그랜드 캐니언'(1998) 등의 작품 앞에서 한참을 머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대형 신작 '2007년 12월, 스튜디오에서'는 3000장의 디지털 사진을 이어붙인 작품으로 작품 중앙에 등장하는 호크니 본인의 모습 등이 흥미롭다. 전시는 8월 4일까지 계속된다. 티켓 가격 1만 5000원. /서울=글·사진 김미은 기자 mekim@



- ① 오는 8월 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데이비드 호크니'전에서 만나는 12m 대작 '와터 근처의 더 큰 나무들'
- ② 데이비드 호크니의 대표작 '더 큰 침방'
- ③ '문화역 서울 284'에서 열리고 있는 'DMZ' 전 출품작 전준호·문경원의 '프리덤 빌리지'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